

새로운 차원의 모바일 세상을 만들어 간다

(주)포비커

하루가 다르게 세상은 변화하고 있다. 호출기가 유행을 하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휴대폰이 등장하고, 또 지금은 스마트폰이 생활 속에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이처럼 모바일 세상 속에 살아가는 지금 시대에 모바일로 차원이 다른 세상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 (주)포비커(대표 고종욱, www.fobikr.com)의 고종욱 대표와 직원들이 그 주인공들이다. 그들은 하나로 세계 여러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현하겠다는 큰 목표를 세우고 앞만 보며 전진하고 있는 그룹이다.

글_ 최문선 | 사진_ 신상우





앱 스토어를 통해 판매를 하고 있다. 이 스마트폰 플랫폼기술은 모바일 소프트웨어 회사로서는 손쉽게 수출도 할 수 있는 기술이기도 하다. 포비커는 일반 단말기뿐만 아니라 윈도우 모바일, 구글 안드로이드, 애플 아이폰과 같이 스마트폰과 관련한 플랫폼 개발을 진행 중에 있다. 마지막으로 모바일 에듀케이션은 스마트폰과 전자칠판 혹은 컴퓨터와 연동을 시켜 모바일 단말기를 이용해 선생님들이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교구재를 말한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선생

님들이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데 기존에는 카세트나 CD플레이어를 이용해 재생, 멈춤을 반복하면서 아날로그적이고 아이들과 상호작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교육을 했다면, 모바일 에듀케이션을 이용해 선생님들이 아이들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제어가 가능하게 됐다.

포비커는 현재 이동통신망을 이용한 전자상품 공동 이용방법 및 시스템 등 2건의 특허가 등록된 상태이며, 그 외 출원 중인 특허도 11건이나 된다. 그리고 1건의 국제특허를 출원했을 정도로 아이디어로 몽친 회사다. 포비커는 이러한 아이디어와 기술들을 이용하여 더욱 폭넓게 사업 분야를 확대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 벤처인큐베이터에서 날개를 달고 싶다

포비커는 올해 3월 서울벤처인큐베이터에 입주했다. 벤처기업협회에서 주관하는 각종 교육들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다는 고종욱 대표는 “엔지니어 출신이다 보니 경영 전반에 걸쳐서 많이 부족했다”며 “협회에서 진행하는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회사를 운영하거나, 기반을 닦는데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며 협회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그리고 고 대표는 마케팅 플래커지 사업과 관련해 영업활동이나 마케팅 활동에 많은 지원이 따라주길 바랐다.

지난해 1억 원의 매출을 올린 포비커는 올해 1/4분기까지 이미 작년 매출액의 3배를 넘어섰다. 고종욱 대표는 올 목표액을 10억 원 이상으로 정해놓고 직원들과 함께 열심히 뛰고 있다. 모바일 전문 업체 중 포비커의 기술력은 최고라고 자부하고 있는 고종욱 대표. 4명의 직원으로 시작해 현재는 9명의 직원들이 땀방울을 흘리고 있다. 스마트폰의 종류와 통신사에 상관없이 누구나 사용하는 모바일에 킬러(Killer)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겠다는 단기목표와 그것을 통해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양한 플랫폼과 다양한 언어로 교류할 수 있는 소셜네트워크 모바일 플랫폼을 구현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는 포비커 고종욱 대표의 바람대로 포비커의 앞날에 끝이 보이지 않는 꽃길 이어지길 바라본다.

.. 쉽지 않은 창업

‘새로운 차원의 커뮤니케이션을 창출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의미를 담은 포비커는 2007년 8월에 창업을 한 모바일 전문회사다. 포비커는 모바일 RFID, 스마트폰 플랫폼, 모바일 에듀케이션 등의 사업 분야를 바탕으로 모바일 분야에 집중하고 있다.

포비커의 고종욱 대표는 창업을 하기 전 옛 정보통신부의 유비쿼터스 컴퓨팅 프린터 사업단에서 근무를 했다. 그곳에서 국내 유비쿼터스 정부과제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집행이 되는지를 배웠으며, 이후 KTF에서 근무하며 모바일과 관련한 좋은 아이템이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느꼈다고 한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직접 시연을 해보고 진행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에 창업을 결심하게 됐다고.

창업을 결심하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는 고대표. 하지만 막상 시작을 하려고 보니 모든 일이 계획보다 몇 배 이상 늦어지고 생각했던 대로 진행되지 않아 조금은 지치고, 때때로 화가 났던 적도 있었다고. “가만히 생각해보니 열정을 가지고 시작한 일인데 내가 인내심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싶었다”고 말한 고 대표는 마라톤 같은 이 싸움에서 인내를 가지고 좀 멀리 보자고 마음을 다잡고 힘을 냈다고 한다. “지금도 처음의 열정과 인내심을 항상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다”면서 환하게 웃어보였다.

.. 아이디어와 기술력으로 승부 한다

어렵사리 모바일 전문회사로서 첫 발을 내딛고 사업을 진행 중인 포비커. 포비커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분야 중 모바일 RFID는 RFID 기술을 이용하여 핸드폰의 위치기반 서비스를 하는 분야이다. 단말기가 GPS나 LBS 등의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위치기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술이다. 심지어는 GPS가 서비스할 수 없는 실내에서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모바일 RFID 기술은 지식경제부의 지역소프트웨어특화육성사업을 통해 개발이 완료되었고, 인천세계도시축전이라는 국제엑스포행사에 모바일 서비스 플랫폼 계약을 체결해 납품하기로 한 상태이다. 또 다른 사업 분야인 스마트폰 플랫폼은 국내에서 아이팟 터치라고 많이 알려진 애플사의 아이폰에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서